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4. 1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4 / 11



표지사진 · 길상사의 가을 ©윤웅석

11월의 숲은 성글다.
뜰에 찬 그늘이 내리는 이 무렵이
걸으려는 좀 쓸쓸한 듯하지만
안으로는 중심이 잡히는 아늑하고
따뜻한 계절이다.

- 법정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입시에 낙방당한 부모들에게
처음 마음으로	08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이 불교의 시작이다.
내 마음속 풍경	13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말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16	빠리의 공동묘지, 빠른 라셰즈 - 2
법정스님 책 속의 책	20	지중해의 영감
특별기고	22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닌 부처입니다.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5	아름다운 마무리 - 이성봉 어르신
참교육 이야기	28	보이는 것이 모두 객관적인 진실일까요?
샌디에고 안팎	33	석류처럼 주렁주렁
시심청심	36	깊은 고요
깊은 사람 따라 흐른다	37	단풍 잔치
사색의 뜰	40	두려움 너머
한국불교전설	42	보조국사와 숲 굽는 영감 (송주 · 송광사)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6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237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정은, 연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어제 해질녘, 얼마 전에 전기 대학 입시를 치른 고3 학생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어린 녀석이 들어서면 서부터 한숨이었습니다. 시험 잘 보았느냐고 의례적인 물음을 던지니, 잘 보고 못 보고를 챙길 것도 없이 그저 보는 체했을 뿐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당초부터 대학에 진학할 마음이 없는데 부모들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괴로운 것은 자기 아들은 틀림없이 합격할거라고 믿고 있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처지라고 했습니다.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

하니까, 비정한 경쟁에다가 이기주의자들만 양산하는 오늘날의 대학 교육에 대해 자기는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기 자신만이라도 그런 무리 속에 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직 세상의 탁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어린 뜻이 가상하게 여겨졌 으면서도 나는 선뜻 그의 뜻에 동의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순수한 뜻만으로는 헤쳐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나갈 무렵에는 벌써 전기 대학 입시의 결과가 발표되어, 집집마다 희비에 싸여 기쁨에 들뜨거나 비탄에 빠져 기가 죽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입시가 있던 날 아

글 • 법 정(法 頂)

침, 나는 예불 끝에 큰 소리로 이렇게 염원했습니다.

‘오늘 입시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말고 모두 불거라!’

자식을 두어본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처지로는, 입시 문전에 자식을 세워둔 부모들의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 마음이야 몸소 체험할 길이 없지만 사람의 일이니 관념적으로나마 대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 불자한테서 이런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고 계시는 스님들이 부러운 입시의 계절입니다. 이 괴로움은 글로 적을 수조차 없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고민으로 부처님도 밤낮 시달리셔야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이시겠지요. 우리집에도 두 아이가 있어, 엄마라는 인연 때문에 함께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이 절박한 숙제 앞에 꼭 차 있는 가슴의 열뇌입니다 (이하 생략).”

불안하고 초조한 열뇌로 찬 그 마음이 이제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으로 가득 차기를 빌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일이란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낙방의 고배를 마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란 지금 당장의 눈앞 일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불가사의한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합격과 불합격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전인생의 과정을 두고 볼 때, 오늘의 합격이 행복을 보장한다고만은 볼 수 없고, 이번의 낙방이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어서 알고 있듯이, 세상 일이란 흥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복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들에는 모두가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소리 같지만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람에게겐 저마다 자기 몫의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 그릇을 채우

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차면 넘칩니다. 이런 도리를 안다면 눈앞의 합격과 불합격을 두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비탄에 잠겨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문지식에 흥미를 느끼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을 습득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비정한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오늘의 대학에 진학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내 자신도 의문을 가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심을 조장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상대를 고르는 데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이 참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럴듯한 직업을 얻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삶의 진실인지 스스로 찾아내도록 거드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저 그렇고 그런 잿빛 일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찾아내야 할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하는 일은 기껏 직업을 갖는 수단이나 결혼을 하는 데 후광이 되고 무슨 보장을 받는 발판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명문대학에 들어가 고등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깊은 내적 통찰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생각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밝은 심성에서 우리나는 지혜는 밖에서 언어듣는 지식과는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지혜는, 메마른 이론으로 입씨름하는 대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대학은 시험과 학위를 출

세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삶의 진실을 등진 채 겉치레로 일관해 온 황량한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와 대열에 끼지 못한 것을 두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기량과 빛깔을 지니고 마음껏 뻗어나가야 할 어린 영혼이 어떤 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전존재를 기울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런 기회에 찾아내야 합니다. 대학의 통로만

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므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좋아서 하도록 마음 써주십시오.

시절연인이 오면 저마다 자기 몫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제발 그 우거지상을 거두고 한바탕 웃으면서 털고 일어서십시오. 웃는 집에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늘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일에 갇히지 마십시오. 1991

- 버리고 떠나기 중에서

2014년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누기

'맑고 향기롭게'는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넉넉한 정으로 나누려 합니다.

1999년 겨울 처음으로 100포기의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 이후, 매년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김장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맛있는 김장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마주잡고 '맑고 향기롭게 나눔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12월 3일(수) - 천막 설치, 재료 및 양념 준비
12월 4일(목) - 배춧속 넣기, 포장, 전달, 정리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후원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 문의 : 중앙모임 사무국 ☎02.741-4696

(無上菩提心)

글· 덕 운(德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짓는 허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통틀어 십악(十惡)이라고 합니다.

몸의 3가지 악업, 입의 4가지 악업, 뜻의 3가지 악업입니다. 즉 몸으로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을 짓고, 입으로는 거짓말(妄語), 추악한 말(惡口), 이간하는 말(兩舌)과 아첨하며 꾸며대는 말(綺語)을 내뱉으며 생각으로는 탐심과 분심과 치심(癡心: 어리석은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이 나쁜 업(業)들은 모두가 자기애(自己愛) 때문에 생겨납니다. 나에게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나에게 맞으

면 탐욕심을 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분노심을 일으키며, 나에게 사로잡히다보니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여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천수만 가지 번뇌와 나쁜 말, 심지어는 나쁜 행동까지 거침없이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나쁜 일을 처음 할 때는 자기 양심에 찢려 머뭇거리려는 것도 있지만, 자꾸 하다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핑계거리를 대게 되고 또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나쁜 일에 탐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보면 갖가지 번뇌

에 더욱더 휘말려서 마음이 편치 않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며 걱정하고 짜증을 내면서 살게 되는 것도 다 나에게 대한 애착(愛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번뇌를 좋아하고 번뇌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 받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번뇌가 싫고 번뇌를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이 지경에 처해서 삶을 진솔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한바탕 꿈속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뇌 망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허망한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세생생(世世生生)토록 선악(善惡)의 인과(因果)에 휘말리고 생사의 세계를 윤회(輪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서는 늙고, 늙어서는 또 병들고, 마침내 한량없는 고통을 받다가 나고 죽기를 되풀이하는 무상(無常)의 삶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깨어날 줄 모르는 미망의 존재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꿈이 생각해볼수록 꿈과 같고 무상(無常)하기 그지없는 인생(人生), 이러한 인생이 부질없는 꿈이고 고통인 줄 알 때 참다운 발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 시에서 인생을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인생을 헤아리니 한바탕 꿈이로다.
 좋은 일 곳은일도 다 한바탕 꿈이로다.
 꿈속에서 꿈을 헤아리니,
 이아니 가소로운가.
 어즈버 인생 일장춘몽을 언제 깨려하느뇨.

이 옛 시조처럼 인생을 한바탕 꿈으로 생각하고 꿈을 깨기 위한 진정한 발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심을 하였으면 정법(正法)의 문(門)으로 들어와야만 진정한 수행(修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법(正法)이 있고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불보살님들이 함께 하고, 호법선신들이 그것을 옹호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옛 이야기 한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마조(馬祖)스님의 법맥을 이은 제자 중에 염관 제안 선사라는 대도인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염관선사는 저녁공양을 마친 뒤 방에 앉아 밖을 무심히 내다보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명의 사미승이 큰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까지 닿는 큰 광명이 솟구치더니, 하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등의 보살님들과 호법 신성들이 내려와 찬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재 선재라, 참으로 장하도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활연히 대도를 깨달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지니라.”

도력이 높은 제안 선사였던지라 남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 까닭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그렇게 큰 보살님과 제천선신들이 함께 찬탄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지나자 보살님과 제천선신들이 하나둘 모두 떠나고, 시커먼 돼지 귀신들이 추한 냄새를

풍기며 몰려왔습니다.

돼지 귀신들은 쿵쿵거리고 바닥에다 침을 툭툭 뱉어가면서 얼룩진 발자국을 남기며 쫓아 다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연유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 이튿날 사미승들을 부른 선사는 어제 일들을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제 저녁 공양 후에 법당 앞에서 경행을 하였지?”

“사미승들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저희들이 처음에는 <법화경>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청정한 수행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를 말하며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선공부가 밀도 끝도 없는지 아무리 해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푸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울의 아무개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데 장가가서 아이들이나 낳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이야기들을 농담으로 하였습니다.”

“알았다.”

다음날 선사는 대중들을 모아 놓고 법좌(法座)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습니다.

“어두운 방안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신의 눈은 번갯불과 같이 털끝조차도 놓치지 않나니

정성을 다해 지극히 호위를 하다가도 발연히 노하고 꾸짖으며 발자취를 씻느니라.”

이는 우리가 정법(正法)대로 바르게 믿고 수행해간다면 언제나 불보살과 제천선신들이 함께하는 가피가 있음을 말해주며, 이로 인해 마침내는 가장 높은 법, 희유한 법인 무상(無上)도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자기에 대한 애착과 헛된 욕심 때문에 일생을 허망한 꿈을 꾸며 인생을 헛되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부질없는 재물과 명예를 좇아 좀더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속에 탐욕을 부리며 앞으로 나가지만 말고, 인생

이라는 해가 점점 더 서산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무상하고 허망함이 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히 느낀다면, 어찌 해탈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을 구하지 않으리오.

무상(無常)을 느끼고 발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를 이루겠다는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을 일으킬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불교의 시작이요 곧 초발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그 깨달음을 향하여 정법(正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한걸음 한걸음씩 앞을 향하여 수행해가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대도를 성취하지 못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지 발심을 하고 수행해 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도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가야 하는가? 옛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서나 두루 나타나지만 실은 오직 하나인 비로자나인 청정한 법신의 응용일 뿐이니 이 법신(法身)이란 곧 내 마음이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에 들이 없음을 자세히 관찰한다면, 비로소 비로자나인 청정한 법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생각이 악(惡)을 일으키면 법신도 따라 나타나고, 한 생각이 선(善)을 일으키면 법신도 따라 나타나는 것을 ‘어느 곳이나 서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빛깔이 있는 곳에서도 나타나고 공한 곳에서도 나타나 자재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니, 멀리 여러 성인들에게만 미루지 말고 오직 한 생각의 마음을 비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라고 해서 높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한 생각 한 생각에 매이지 않고 비워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日常)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생각 한 생각을 잘 챙겨

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修行)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끊임없이 맑혀가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맑혀 나가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 불보살님들의 말씀과 조사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고 방망이로 때리며 할을 하는 따위의 방편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을 초탈하여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영원한 행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가을 날, 산으로 들로 다니며 단풍놀이 즐기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허한 마음의 틈을 가꾸는 알차고 귀중한 시간들로 채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불기 2558년 9월 초하루
(2014년 9월 24일)

글 • 이경숙(수필가)

“고생했다”라는 말이 나왔다. “아픈 데는 없냐.”고 물었다.

사실은 “너 왜 그랬어?” “누가 시켰어?” “왜 데리러 왔는지 알지?”라는 말을 먼저 하려고 했었다. 처음 묻는 말이 중요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엉뚱한 말이 튀어 나왔다. 양손에 수갑을, 두 발에는 족쇄를 차고 있었다. 절뚝거렸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다. 악명 높은 중국 공안 수감시설에서 친구와의 그릇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었다. 안쓰러웠다. “고생했다. 아픈 데는 없냐.”는 물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영영 울었다.

지난 3월, 강서 재력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팽모씨를 중국 공안으로부터 인계받던 날, 강서경찰서 강력 2팀장의 마음속 풍경이다.

이렇게 하여 자칫 몸통이 아닌 것털만 잡을 뻔한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해줬던 사건 담당 팀장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매일 30분씩 제가 죽인 고인을 위해 빌고 또 빌니다. 팀장님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인간쓰레기 살인자한테 말해준 ‘고생했지’라는 한마디에 도망 다니면서 불안하고 안 좋은 마음먹었던 것들이

녹아내리며 살 것 같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무심코 내뱉었던 첫 물음에 그는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던 것이었다.

시장이 파할 무렵,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갈 때가 있다. 특별히 살 게 없어도 시장 부근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낮익은 상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한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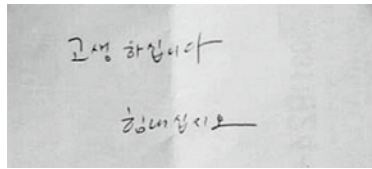
처음엔 내가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남편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인사를 건넨다. 인사를 받은 상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겁다. 시든 배춧잎 같던 상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이렇게 화답한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히 가세요.”

“많이 힘드시실 텐데 어서 들어가 편히 쉬세요.”

수고했다며 술 한 잔 사주는 것도 아니고 팔다가 남은 물건을 팔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들의 수고를 헤아려주는 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하루의 피로가 가시리라도 하는

결까. 요즘 영세 상인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가. 경기는 어렵고 사람들의 인심은 딱딱하기만 하다.



이 작은 쪽지 하나가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언젠가 공동체에서 몹시 힘든 상황에 봉착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였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슬그머니 건넨 쪽지는 열 마디 말보다 더 위력이 있었다.

퇴근한 남편에게도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넨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 남편은 양 어깨에 얹혀 있는 피로를 탈탈 털어내며 이렇게 화답한다.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지.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어찌 힘들지 않았으랴.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여 밤이 이슬해

서야 귀가하는 사람이다. 직장에서는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자주 흔들렸겠는가.

나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아이들을 좋아한다지만 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는 일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

은가. 그런데도 남편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 마디에 일상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한다.

세상이 삭막하고 강박한 게 어찌 다 남 탓 만이겠는가.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에 봄눈이 온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중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 - 013 - 787953 (맑고 향기롭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각 지역모임에서도 동전 모금통을 배포하고 있으며, 모여진 동전은 지역모임으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지역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2

글 • 오상일(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

빠르 라쉴즈가 명소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아벨라르-엘로이즈 합장묘 외에도 또 있다. 몽마르트르의 화가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와 잔느(Jeanne Hébuterne, 1898-1920)의 합장묘가 그것이다. 오늘날 몽마르트르는 관광객과 잡상인들로 북적대고 집세 또한 엄청 비싸졌지만,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빠리의 달동네였다. 세계 어느 곳 이든 젊은 예술가들은 집세가 싼 번두리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이면 그 지역은 점차 문화가 숨 쉬는 곳으로 변화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변화한 상업지역으로 둔갑한다.

그 대표적 예가 빠리의 몽마르트르와 몽빠르나스이며,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가 그렇고, 서울의 홍대 앞 또한 그러하다. 60년대만 해도 홍대 생들은 버스 종점인 신촌로터리에서부터 상수동까지 횡톳길을 걸어서 등교해야 했고, 학교 앞 유흥업소라고는 고작 대폿집 한 곳이 전부였다. 몽마르트르 언덕 밑에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세낸 작업실은 비바람 부는 날이면 온 집이 뼈꺼덕거렸기 때문에 세느 강변에 묶여있는 세탁선 같다 하여 바또 라부아르(Le Bateau-Lavoir)라고 불렀다. 이 집은 오늘날 자조적으로 붙여준 그 이름을 보란 듯이 써 붙이고 자신도 빠리 문화사의 산 증인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 곳의 카페를 전전하며 밀린 외상값을

드로잉 몇 점으로 통치고, 혼자 앉아 있는 여인을 보면 허룻밤 사랑을 구걸하던 유태계 이탈리아인. 많은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렇듯이 잘생긴 외모와 화술로 그에게는 여자 궁할 일이 없었다. 결핵과 압생뜨와 해시시로 망가진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잔느...

제자이자 모델이었던 그녀는 그를 끝까지 지킨 마지막 여인이었다.

모딜리아니 뿐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을 중독시킨 압생뜨는 초록빛이 나는 독한 증류주로서 ‘초록빛 요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보통은 구멍이 뚫린 특별한 알코올스푼 위에 불붙인 각설탕을 압생뜨에 녹여 먹는데 한번 맛들이면 헤어날 수 없다. 랭보, 로트렉, 피카소, 헤밍웨이 등도 이 술의 매니아였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 술의 폐해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일차대전 이후 생산을 금지했다가 90년대 들어 재생산하기 시작했다.

해시시는 마리후아나와 비슷한 마

약의 일종이다. 대마를 푹 삶아낸 엑기스에 약간의 아편과 향료와 꿀을 섞어, 잼으로 만들어 복용하거나 분말로 만들어 흡연하기도 한다. 오스카 와일드, 보들레르, 베를레네 등도 이것에 빠져 살았는데, 특히 보들레르는 압생뜨와 해시시의 열렬한 예찬자였고 그야말로 영혼의 해방을 향한 통로라고 생각했다.

빠리의 겨울은 우울하다.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이면 고향 리보르노의 따뜻한 태양을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모딜리아니. 그리고 모처럼의 이탈리아 요양에서 돌아와 새로 정착한 몽빠르나스에서도 모딜리아니와 잔느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의 몽빠르나스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차고 대로가 뻗어나간 변화가로 변해 있지만, 당시 그곳의 예술가들은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 대신에 따뜻한 카페로 모여 들었다. 빠리의 주택사정은 매우 열악하여 가족 네댓 명이 한 방에서 자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니 요즈

음도 빠리장들이 집보다 카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가 아닌가 싶다. 예술가 서넛이 둘러앉아 커피는 한 잔만 주문하고도, 종일을 죽치면서 창작에 몰두하거나, 떠들썩하게 토론하곤 했다. 빠리의 낭만이라 할까? 주인장은 이들 예술가들을 백안시하지 않았다. 당시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카페 라 클로즈리 데 릴라(La Closerie des Lilas 라일락이 있는 뜰)를 비롯한 몇몇 카페는 지금 빠리의 명소가 되어 있다. 이 도시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그들이 보여준 반상업주의와 딜레탕띠즘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변 카페에 앉아 그들의 삶과 예술을 추억한다. 오늘날 미술의 중심지라면 뉴욕을 지목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빠리는 세계 각지에서 온 보헤미안 예술가들의 집합지였다. 그리고 미술사는 19세기말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이곳에서 활동한 작가들과 그 예술을 일컬어 에콜 드 빠리(Ecole de Paris 빠리派)라고 명명한다.

피카소, 키슬링, 샤갈, 몬드리안, 수틴, 그리고 조각가 브랑쿠시와 자드킨 이외에도 20세기 미술을 빛낸 천재들이 수도룩하다. 특정한 예술상의 이념으로 모인 것이 아니지만, 그들 각자의 독립적 작업은 20세기 모더니즘의 전개에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다. 그러나 에콜 드 빠리는 미술사적 의미에 더해서 세기말적 분위기와 술한 에피소드로 인해 애뜻함과 그리움을 수반하는 단어가 되었다. 우디 앨런의 영화 <Midnight in Paris 빠리의 깊은 밤>은 그 시절에 대한 노스탈지아와 상실의 멜랑콜리를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에콜 드 빠리의 중심적 화가 모딜리아니는 목이 기다란 여인의 초상화와 육감적 누드화들을 가지고 평생 숙원이었던 개인전을 개최한다. 그 전시회에서 누드화는 모델의 체모를 그대로 그려 넣은 포르노그라피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는 수모를 겪는다. 그러나 그의 그림을 이해했던 소수의 애호가들 덕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허여된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그가 죽은 바로 다음날 친정집 아파트에서 투신한 잔느는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우리는 지금 모딜리아니를 예술지상주의의 순교자, 몽마르트르의 전설로 기억한다. 그리고 가난과 외로움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함께 했던 두 사람은 이곳 빠르 라세즈에서 단순하고도 수수한 묘석 아래 누워있다. 살아 생전에 극진히

사랑했던 이들에게 저승에서도 함께 하라는 배려가 아름답다. 누군가가 바치고 간 꽃다발이 놓여 있고,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영광의 순간에 죽음을 맞다; 잔느 에뷔떼른, 지극한 희생의 헌신적 동반자”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나는 지금 가을 햇살 속의 공원묘지에 앉아있다. 망자들은 혼탁한 세상의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평화를 찾는다. 미루나무 가지 끝에 젖빛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검정색 비석 주위를 날고 있다. 비석도 잠자리도 구름도 각기 모습만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다. 나는 이 고요한 평등이 좋다. 어릴 적 그리도 무서웠던 공동묘지가…….(끝)

2014년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및 길상사 창건 17주년 기념 음악회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회원들 간의 만남의 자리와 더불어 길상사 창건을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호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일정 : 2014년 12월 14일(일요일) / 오후 2시(예정)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나는 몇 권의 책을 짐 속에 챙긴다. (중략)

지난 해 늦가을 유럽을 여행할 때도 두어 권의 시집과 함께 장 그르니에의 <지중해의 영감>을 가지고 갔었다. 런던과 파리, 뮌헨, 쾰른, 베를린, 제네바 할 것 없이 가는 데마다 잔뜩 우거지상을 한 찌푸린 날씨라 짜증이 났었다. 푸른 하늘과 햇볕을 볼 수 없어 내 의식의 바닥에도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남프랑스와 이태리 쪽으로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의 푸른 바다와 밝은 햇살을 대하니 막혔던 햇살과 드넓은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 몫을 하는지 새삼스레 헤아리면서, 삼면이 바다에다 사철 밝은 햇볕이 철철 넘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리

적인 여건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때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면서 <지중해의 영감>을 읽으니 내 안에서 무한한 창조력(영감)이 샘솟아 올랐다. 그 글이 쓰여진 현지에 가서 읽으면 그 감흥이 훨씬 절절하게 다가선다는 사실을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요즘은 소설보다도 명상 계통의 서적을 접할 기회가 잦다. 몇 구절씩 펼쳐보다가 책을 덮어두고 나 자신을 읽고 싶다. 사실 좋은 책이란 책장이 술술 넘겨지는 책만이 아니라, 읽다가 덮으면서 나 자신의 속뜻을 들여다보는 그런 책일 것이다.

선가(禪家)에 이런 글이 전해진다.

사람마다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활자로 된 게 아니다.
펼쳐 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네.

(버리고 떠나기 43~44)

지난해 늦가을 지중해 연안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장 그르니에의 <지중해의 영감>에 박혀 있던 귀한 메시지가 이 산골의 오두막에까지 울려오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알맞은 삶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가 일단 그의 삶을 찾았을 때 그것은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삶이란 당초부터 없었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바란다. 그러나 그 안정과 편안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성의 늪

이요 함정일 수 있다. 그 안정과 편안함의 늪에 갇히게 되면 창공으로 드높이 날아올라야 할 날개가 접혀지고 만다.

안락한 삶을 뛰어넘어 충만한 삶에 이르고자 한다면 끝없는 탈출과 시작이 있어야 한다. 자연은 사계절을 통해 항상 새롭게 태어난다. 여름 동안 무성했던 잎들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는 것은 가을의 열매를 통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다. 이러한 대사작용이 없다면 자연은 살아 있는 생명체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개울가에 나가 훤히 벗어 부치고 빨래를 해야겠다. 흐르는 개울물에 빨래를 하면 때가 잘 지고 힘이 덜 든다. 내 마음 속에 낀 때도 함께 말끔히 씻겨지는 것 같다.

(버리고 떠나기 32~33)

공덕주 길상화보살 기일, 11월 28일(금)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될 수 있도록 무주상보시를 한 길상화보살님의 기재가 오는 11월 28일(음력 10월 7일) 오전 9시 50분부터 지장전에서 마련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실천하신 길상화보살님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자연을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인류는 사막화, 온난화, 서식지파괴, 남획, 오염 등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로 여섯 번째 대량멸종이라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이 위기는 인간 생존의 위협이라는 큰 과보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이제까지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명을 이용의 대상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제껏 저지른 생명과 파괴행위를 참회하고, 못 생명들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근간으로 삼아

온 생활양식을 종식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평화 속에서 공존하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존엄을 닦는 지구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절박합니다. 우리는 일상적 실천과 더불어 공동체와 국가, 전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月精寺)는 관세음보살이 모든 열병을 식혀 이 세상을 청량하게 만들고자 했던 원력을 담고 있는 천년고찰입니다. 지구의 열병을 식히고 모

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찾기 위해 한국의 불자들은 월정사에서 다음과 같이 '2014 생명평화를 위한 평창불교선언'을 발표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적 존재입니다.

우주는 각각의 구슬이 모든 세계를 비추는 인드라마입니다. 하나 속에 모두가, 모두 속에 하나가 존재하는 한 생명입니다. 티끌같이 작은 생명도 온 우주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며, 그 작은 생명 하나도 온 우주에 두루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며 서로를 살리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필요성이나 유용성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따라서 생명은 가격을 매길 수 없으며, 인간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돈벌이 상품이 아닙니다. 합부로 훼손되거나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항상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자연과 생명을 마주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한 존재입니다.

유정물(有情物)만이 아니라 햇빛과 공기, 바람과 물, 흙 등과 같은 무정물(無情物)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이러한 연기성(緣起性)을 바탕으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성을 갖습니다. 때문에 우열과 선악이 없으며 차별 없이 평등합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등은 모심과 공경이라는 자비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숲의 종교이자 불살생의 종교인 불교는 오랜 기간 자연과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문화에서 사찰이 없는 산과 숲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는 일찍이 국토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대지의 지기(地氣)를 살림으로써 오늘날 국립공원을 비롯한 산림의 바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듯 자연과 함께 해온 전통과 문화는 생

태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문화는 결국 지역민들의 힘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온 문화다양성의 보전은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의 평화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명의 위기는 본래 나눌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세계를 가르고 구분해온 인간의 잘못된 문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왔고, 지구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못생명을 이용해온 삶을 먼저 참회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들 ‘덕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되갚고자 하는 ‘보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하고 평화로울 권리가 있고 인간은 그것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끊어놓은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생명들 사이의 형평성과 권리를 지켜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2014 생명평화를 위한
평창불교선언 전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CBD-COP12)가 지난 9월 29일에서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열린 CBD에는 194개국 당사국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지구촌 생명올림픽을 지향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를 맞아 ‘생명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불자들’ 명의로 불교계가 생명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독거노인에게 매달 제공되는 급여액은 보통 40만원 미만입니다. 이 중에서 20만원은 월세로 지출하고 나머지 20만원을 가지고 생활하십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고 계신 독거노인의 경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모두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셔서 월세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란 곳이 단열공사와는 거리가 먼 오래된 기와집이라서 외풍이 심하고, 겨울 난방 지출비용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각 사회복지관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난방비 지원사업만큼이나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지방에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 2드럼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배

관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보다 더 비싼 난방 연료인 석유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석유 1드럼의 가격은 보통 20만원이 넘습니다. 1드럼으로 한 달을 지낼 수 있습니다. 겨울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시골에 사시는 많은 독거노인들이 전기장판에만 의존하는 모습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노환으로 몸도 아프고 게다가 혼자라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2동에서 홀로 사시는 이성봉 어르신(73세)에게도 겨울은 매년 자기단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른쪽 팔목이 절단되어 있는 장애인이기도 한 어르신에게 겨울은 몸과 마음을 더욱 위축되게 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성봉 어르신은 난

방비로 월 8만원을 지출하십니다. 하지만 12월 15일부터 딱 2달만 가스 보일러를 가동하십니다. 겨울 난방비 지출이 가계의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인근 사회복지관으로부터 겨울을 맞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받는 세대가 있지만 단 1번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난방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성봉 어르신은 재작년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작년 10월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추운 날씨를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이제 같은 거리를 걸으면 숨이 차오릅니다.

젊어서 고향 전라북도 익산에서 상경한 이성봉 어르신은 1985년에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는 도중, 기계 속으로 끈이 감겨들어갔고 오른쪽 손이 팔려 들어가면서 손목 아래

가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몇 달 뒤 아내가 사망하고 자신은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 되어 마음 속 깊은 상처들을 온몸으로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미는 서비스를 거부당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도 맞서야 했지만 혼자 딸 아이 두 명을 길렀습니다. 이제 연로한 어르신은 그동안 오른손 뭉까지를 대신해왔던 왼손이 떨리는 증상을 직접 마주하곤 합니다. 왼손의 집게손가락 끝마디는 굳어 버려 움직이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견뎌왔지만 이제 밥을 먹을 때 손이 떨려 같이 흔들리고 있는 수저 앞에서 낯선 자신을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성봉 어르신은 재작년 8월 딸들의 소득이 재파악되면서 생계급여가 감소하여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자녀가 있었지만 그동안 어르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고, 가족관계 자체가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딸들로부터 생일상을 받아보지

못하고, 명절도 혼자 조용히 지내곤 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차라리 남이 될지언정, 이미 남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차마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령사회(65세 인구 가 총인구의 14% 이상)로 이행(移行)

중입니다. 9년째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결연후원 및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노인복지 사업비로 전액 집행됩니다.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맑고 향기롭게
- 캠페인 일정 : 11월 2일(일), 11월 30일(일) 갈상사 경내
- 다음 희망해 모금 및 서명 방법 : 포털 사이트 '다음' - 희망해 - 맑고 향기롭게 검색하여 서명 또는 모금 참여

주변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옵니다. 그동안 고독사를 빈곤층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등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상태를 떠나 혼자 사는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과 '갈상사' 신도님 중에서도 가슴앓이 하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회원님과 신도님 중에서 노환, 병환 등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이 없어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겪고 있는 분께서는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화말벗 봉사자를 연계해드리거나 적절한 도움을 연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뜻을 함께 하실 봉사자의 손길도 기다립니다. (02.741-4696)

?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되고 정서 불안과 지능 저하, 그리고 영양가 감소, 암과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와 관련 있는 비타민 B복합체, 비타민 C, 비타민 E뿐만 아니라 두뇌와 신체기능의 핵심 성분인 필수 무기질이 사라지게 만들기도 한다.’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의 정체는 뭘까? 이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필수품처럼 구비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 먹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다.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의 시비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지만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가 전자레인지로 가공한 음식의 90%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다니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소비자들이 판

단할 몫이다.

내가 배워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진실일까? 데카르트는 “생각하기에 존재한다(cogito, ergo sum)”면서 “회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의하라” 했지만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언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의심 없는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공중파를 통해 수없이 전달되는 광고며 지하철역이며 건물 벽에 어김없이 붙어있는 성형수술 광고는 과연 끈이끈대로 믿어도 좋은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적인 지식조차도 5·16혁명은 왜 혁명이 아니라 군사정변이 되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워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흠결 없는 진리인가?

며칠 전 대체의학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쓴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읽다가 나는 심한 충격에 빠져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던 일이 있다. 대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사경을 헤매야 했던 필자로서는 암이 병이 아니라는 저자의 주장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과 맹신을 하고 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누구나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들……. TV를 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광고나 어린 아이를 달랠 때까지 이용하는 스마트폰은 안전하기만 한가? 우리네 가정에서 생활필수품처럼 된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모리츠박사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혈액에서 암세포가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소화불량, 변비 위암과 장암의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육종(

악성종양)을 포함한 세포종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에 고주파의 마이크로파를 퍼부어 음식을 음식답게 하는 분자구조를 갈가리 찢어 놓는다는 것이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물 분자가 초당 왕복 10억 회 이상 앞뒤로 움직이게 함으로서 음식물과 음식물의 분자구조를 깨뜨리고 화학적 조성을 재배열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음식물로 인식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바뀌 놓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레인지를 거쳐 나온 음식은 외형은 그대로지만 내용물은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것이다. 모리츠박사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을 폐기물이라는 말도 부족해 ‘핵폐기물’이라고 표현했다.

학교를 일컬어 의도적인 재사회화 기관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을 만들어 그런 과정을 따라 교육을 받으면 원하는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의 목적인 홍익인간과 같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을 보면 실감이 난다. 사회와 역사를 배우지만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과학을 공부하지만 조미료와 식품첨가물로 범벅이 된 먹거리조차 구분할 줄 모르는 절름발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왜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도록 가르치면서 '남을 사랑하여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이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오지심이 나 서로 양보하고 공경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지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을까? 역사를 배우면서도 사관도 없이 역사적 지식만 암기하면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을까?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는 왜 도동 3권조차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과학을 배우면서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은 죽은 지식이 다.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제된 기름이나 마요네즈, 샐러드용 드레싱, 그리고 마가린 같은 식품이나 다가(多價)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면 피부암이나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가?

가공식품이나 커피 그리고 음료수가 얼마나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가공된 식품, 정제된 식품, '강화된' 식품, 저장식품, 향이 가미된 식품, 인스턴트 식품,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품, 탄산음료,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전자레인지에 데운 식품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암이 발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인간의 몸은 자연 속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곰팡이도 살 수 없도록 만든 감자

튀김이나 햄버거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음식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도록 방관하는 교육은 산교육이 아니다. 그런 음식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도록 하는 게 자식사랑일까? 식습관을 개선하고 영양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학교급식조차 대장암과 폐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붉은 고기 중심의 식단은 올바른 식습관 교육일까?

현상은 본질과 다르다. 삶에 쫓겨 바쁘게 살다보니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본질이 현상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농업사회에서는 가능했던 일들이 금융자본주의 사회, 정보화 사회, IT산업 사회에서는 현상은 보이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먹고 사는 주식인 쌀에서부터 반찬거리며 간식이 걸으려는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숨겨진 상업주의라는 괴물로 포장된 상품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다.

자본의 탐욕은 사물을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사시(斜視)로 만들고 있다. 의사들만 해도 그렇다. 의사들은 사람들의 인체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기능론적 인간관으로 숙련시켜놓은 전문의는 안과는 눈만, 치과는 이빨만, 피부과는 피부와 관련된 병만 진료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변화되고 있듯이 사람의 인체 또한 서로 연관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분은 전체가 아니다. 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돈으로 또 학력으로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비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전통사

회에서 볼 수 있는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가 아니다.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 건강하게 사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나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시류에 편승해 좋은 게 좋다고 산다든가 언론의 편향된 논리에 휩쓸려 방황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뢰밭이다. 지뢰밭은 사는 사람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의학정보가 그렇고 나의 소신이나 양심을 지

키기 위한 철학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다.

햇볕의 자외선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의약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천연의약품이었는데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이상한 가면을 쓰고 다니는 여성들이나 눈 건강에 필수적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

몸을 혹사해 알바로 돈이 생기기 바쁘게 성형외과를 찾아 얼굴부터 고치는 젊은이들……. 파랑새를 쫓다가 불행을 스스로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방향은 언제쯤 그칠까?

고등학생 및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자로서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활동할 고등학생 및 대학생 봉사자를 찾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요가선생님의 지도하에 봉사자와 장애아동이 1:1로 짝을 맺어 요가를 할 수 있도록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매달 회 활동으로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둘째, 셋째 일요일 중 가능한 날을 택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실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청을 기다리며, 모금 캠페인에 함께할 봉사자도 기다립니다. (02, 741-4696 / 담당 : 안근호 간사)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미국에서 맛본 석류의 맛은 기뻐 찼다. 올해는 석류꽃이 아주 늦은 봄에 피었다. 화려하지도 붉지도 않은 주홍빛이 도는 석류꽃은 해마다 피지만, 주위에 나무가 많아서인지 우두둑 떨어지곤 했다. 좀 정성을 부었더니 올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했다.

어린 시절 석류나무가 서 있던 친정 집 부엌 앞 풍경. 장독대 건너편에 놓여있던 돌멩이 빨래터와 썸가 곁에서 있던 나무였다. 뿌리가 물을 먹고 쑥쑥 자랐지만 미국 석류와 달리 이빨이 시려 많이 먹지 못했다. 후덥지근한 여름이면 석류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다. 더위에 약해 땀을 자주 흘리던 나는 물가에서 놀며 펌프 물을 뽑아 꽃밭에 물주는 일을 즐겼다. 지금도 정원일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나의 정서적인 뿌리가 담긴 빛고을, 서석동 20번지 유년시절의 집.

부모님보다 늘 일찍 일어났던 고등학생 오빠. 밥술이 걸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펌프로 물을 폼어 항아리에 채워 놓던 큰아들의 효심을 어머니는 흐뭇하여 두고두고 들려주셨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침이면 석류나무 아래서 냉수마찰을 하던 오빠.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면 규칙적인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친척들은 책상에만 붙어 공부하는 오빠를 생선 어묵(가마보코-일본 말)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유명한 최승희 무용가의 춤을 보러 가다 군중 속에 떠밀려 서석초등학교 앞의 맨홀에 빠져

하마터면 파상풍으로 죽을 뻔했던 오빠였다. 아버지의 정성으로 살아나 서울의대를 수석 입학하고 졸업 후, 미국에서 의학자로 뿌리를 내렸기에 우리 형제들이 하나둘 이민 오게 된 것이다.

학창시절 아버지 사진기를 좋아서 들고 다니던 오빠. 눈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하얀 눈발에 나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을까. 조선대학교 뒷산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서있는 내 모습이 조그마해 사진의 주제는 하얀 눈 같아 난 많이 웃었다. 아버지는 월급이 넉넉지 않았지만, 예술적 취미를 지녀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 놓고 사진을 찍어 나누어주기도 하고, 앨범을 만들며 우리의 추억을 엮어주던 자상한 분이였다. 큰소리를 치시면 온 동네 아이들이 모두 숨어버리던 엄격한 분. 때론 자식인 우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꽃과 과일나무들을 아끼던 아버지. 석류나무를 바라볼 때면 자랄 적 추억들이 떠올라 나는 한 때 단란했던 고향집으로 달려간다.

두 해 전 우리 집 석류나무 가지를 자르던 날 밤, 나는 심한 고열로 앓았다. 다음날 오후에 한 쪽 눈이 갑자기 침침해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운이 좋아 레이저로 망막수술을 받고 시력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굵은 석류가지를 자르느라 힘을 쓰다 하마터면 한쪽 눈이 봉사가 될 뻔했으니. 커다란 가위를 누르며 팔의 근육운동이 되는 나무 손질을 즐겁게 이십 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지나친 것이 탈이었다.

“아버지, 중풍의 상처로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진 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종종 서러워 통곡하던 여고생이었죠. 와이셔츠에 오줌을 싸던 한 살배기 딸이 수필작가가 되어 세 번째 책은 방일영문화재단의 지원금으로 출판하게 되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어 집 마당에 추억의 나무들을 수필이라는 예술과 함께 하나씩 흠에 심고 있어요.” 지난 날 오십 대에 불구가 된 아버지 소변

을 눈감고 내가 받아 낼 때면, 열여덟 살 딸에게 연거푸 미안해하던 아버지. 그 땐 이사하여 우린 마당도 없는 작은 집에 비참하게 살았다.

우리 집 석류가 익어 썩 벌어지면 향기를 맡고 어느새 날아오는 새들. 내 그리움의 친정 부모님의 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40년 넘도록 삶의 긴 터널을 지난 내 글쓰기도 석류처럼 주렁주렁 익어가려나. 이제 질투 없는 순한 마음의 눈으로 착한 영혼을 서로 알아보는 세상에 초대받고 싶어진다. 달콤한 석류 알을 입에 넣고 씹는데, 웬일인지 찡하게 서러움이!

‘새박사’ 윤무부 교수 초청 - 환경특강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11월 30일(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자연 속에서 새처럼 자유롭게 살았던 국내 ‘새박사’의 일인자로 손꼽히는 윤무부 교수님을 초청하여 전문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들어보고, 뇌경색을 선고 받은 후 다시 탐사에 나설 정도로 몸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들어봅니다. 조류학자 윤무부 교수님의 환경특강에 참석하시어 새에 대한 많은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새들이 지저귀는 숲으로 멋진 가을여행 떠나보세요.

“우리 곁에서 새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딱딱하고 메마를 것인가. 새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는 소리요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이다.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글 • 한성희

종소리가 가을 긴 의자에 앉았다
 사내는 마흔아홉 번째 이력서를 생각했다
 고개를 끄덕이듯 종소리가 사내를 흔들었다
 가로등을 의자 곁으로 끌어들여
 며칠째 긴 그림자가 의자 위에 누웠다가 갔다
 그때마다 길들은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범종소리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었다
 종소리에는 소박한 찬거리가 담겼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등이 보였다
 종소리가 의자를 몇 바퀴 돌다가
 잠이 든 사내를 잡아당겼다
 사내가 봉대처럼 스르르 풀렸다
 이력의 몸에 감겨 미라가 된 그림자
 사내의 뺏속 깊숙이 길을 열었다

* 한성희 :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문학예술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계간 「시평」으로 등단하였으며,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
 금을 수혜 받았다. 현재 계간 「시와소금」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 • 강인철

막내와 단들이 등산을 하게 된 건
 처음이다. 틈만 나면 가족 산행을 자
 주 하는 편인데도 녀석은 그럴 때마
 다 이유가 많았다. 아직도 철부지인
 데다 꽃미남도 아니면서 멋이나 부
 리고 출근하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
 라 1박2일로 산에 가자고 하면 좌우
 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빠지기 일
 쑤였다.

단풍도 일품이고 산장에서 헤아려
 보는 밤하늘의 별과 하산한 다음 동
 해 바다의 싱싱한 횡거리에 소주 한
 잔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가을 강조하
 며 지난여름부터 공을 많이 들였더
 니 차마 더는 버티지 못하겠는지 울
 뎀 따라 나셨다. 고마웠다.

한계령 마루에서 치고 오른 설악

(雪嶽)은 바로 해발 1천 미터 고지
 를 밟을 수 있어 좋고 능선을 따라
 넓은 시야로 사방을 굽어볼 수 있음
 은 덤으로 얻는 기쁨이다. 간밤에 입
 동(立冬)치를 하느라 눈발이 흩날렸
 는지 산봉우리가 희끗희끗하다. 얼
 마를 걸었을까, 벌써 내려오는 사람
 들이 가끔씩 지나가며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한다.

물 한 모금에 다시 힘을 얻고 뚜벅
 뚜벅 발걸음을 옮겼더니 중청, 대청
 에 이르러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그 곳은 어느새 겨울 분위기가 물씬
 한데 희운각 산장 아래로 장관을 이
 룬 천불동 계곡은 가을단풍이 불바
 다를 이루었다.

그토록 뜨거웠던 여름 끝에 가을

철이 있음은 매서운 겨울을 준비하라는 자연의 배려가 아니겠느냐고 녀석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더니 “그저야 초등학교 상식문제 아닌가요?” 하며 되묻는다. 그렇다면 철 따라 나무들은 어떻게 변하고 봄에 피어 여름내 무성했던 이파리들은 이 가을에 무엇을 준비할까? 했더니 맘을 훔치다 말고 그제야 눈치를 챈 듯 목이 마르다면서 물병을 찾는 척 괜히 부산을 떠난다.

단풍은 여름 잎사귀들이 제 집을 떠나기에 앞서 한판 벌이는 작별의 축제라고 했던가. 흐드러지게 잔치라도 한바탕 벌이면 가는 섭섭함에 조금 위안이 되는 모양이다.

사람이든 초목이든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는 일에 어찌 아쉬움이 없을까미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고운 자태로 홀연히 물러나는 뒷모습은 더없이 아름답다. 그래서일까, 단풍 잔치는 이렇게 바람이 차가우면 더욱 바빠진다.

때가 되어 계절에 변화가 오면 동

장군은 어김없이 그 위세를 산 아래로 한 걸음씩 내려딛는다. 그런 줄도 모르고 철부지 이파리들이 가지에 그냥 매달려 있으면 어미나무는 모성(母性) 본능으로 할 수 없이 기공(氣孔)을 열어 그나마 아껴야 할 수 분마저 내주고 물 부족에 시달리다 못해 기운을 잃고 가지마저 말라버린다. 그래서 이때쯤 어미나무들은 앞으로 가는 물길을 서서히 거두고 단풍을 곱게 물들여 떠나보낼 준비를 서두른다.

비정하다고 탓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겨울을 나기 위한 자연의 생존법칙이다. 가을이 돼도 제대로 물들지 못한 나뭇잎들은 그래서 색깔이나 모양새가 웬지 어설피고 초라하다.

단풍이 진 나뭇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겨울눈(冬芽)이 도도룩하게 숨겨져 있음도 볼 수 있다. 내년 봄에 틈낼 어린 새싹을 꼭꼭 감춰 두고 있는 모습이 신비하고 대견하기까지 하다. 제 한 몸 겨울 준비에도 하루 벌이 모자랄 텐데 어느 겨

를에 다음 세대의 새 생명까지 저토록 챙겨놓았는지 어미나무의 헤아릴 수 없는 조화에 감탄이 절로 난다. 아니 참으로 오묘한 자연의 섭리이다.

인간의 탄생을 봄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어른으로 자람은 여름의 성숙이요 하나의 가정을 새롭게 이룸은 가을의 결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부모 슬하에서 맴돌고 있으면 나이를 먹어도 상투를 틀지 못한 ‘댕기동자’ 일 수 밖에 없다.

이따금씩 막내에게 “어이, 철부지~” 하고 놀리면 서른 살 때만 해도 펄펄 뛰던 녀석이 요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슬며시 자리를 뜬다. 말없이 돌아서는 눈빛이 “저도 다 압니다. 걱정 마세요!” 라는 무언의 표정인 것 같아 서로 그냥 웃고 만다.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질다. 희끗희끗한 귀머리까지 붉게 물들 이려고 덤벼드는 것 같다. 이 단풍 잔치가 아버 곁을 떠나기에 앞서 막내

와 함께 한 마지막 축제(?)이길 바라며 녀석을 꼭 안아보았다. 가슴이 따뜻하다. 바람이 싸하고 지나간다. 남아있던 잎들이 대지를 향해 훨훨 하늘을 난다.

그랬던 녀석이 지금은 어엿한 가장이 되어 처자를 거느렸다. 그리고 틈만 나면 어린것에게 말을 건다. “애, 민서야~ 넌 절대로 철부지 되면 안 돼?” 초롱초롱 눈을 맞추고 있던 손주가 “으~응 아~빠” 한다. “거 봐요, 애가 벌써 다 알아듣잖아요?” “.....”

그것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라고 아버의 얼굴이 저리도 좋을까. 녀석은 벌써 제 말을 아이가 알아들었다면서 천재라고, 효자 났다고 벌어진 입이 귀에 걸린다. 저 철부지 아버를 언제까지 봐줘야 할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둘째 가진지 벌써 달포란다. 효자가 따로 없다. 기쁘다.

글 • 김선애(번역가)

이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헤드 워>를 공연하는 극장에서였다. 이모와 어머니와 나는 공연을 보고 저녁을 같이 먹었다. 이모는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았고, 그날은 특히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웃음은 잃지 않았다. 이모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많이 웃었다. 아파서 힘들었을 텐데도, <헤드 워> 그리고 저녁 밥. 우리는 그날 저녁 이모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한 달 뒤 이모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얼마 뒤 오십 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두 해가 지났다. 어제 나는 이모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납골당에 갔다. 그곳의 선반 위에 이모의 두 딸들, 그러니까 내 사촌동생들은 이모의 사진과 꽃을 놓아두었다. 그중

에는 아마도 이모가 십 대 때 찍은 것 같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는 단발머리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지금 이십 대인 두 사촌동생들에게서 나는 때로 이모를 본다. 길옆에 핀 꽃을 볼 때 나는 때로 이모를 생각한다. 이모는 꽃을 좋아했다. 이모의 밝은 웃음과 따스한 마음씨를 기억할 때면, 나는 내 가슴 속에 이모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 어쩌면 죽음은 없는지도 모른다. 오직 변화만이 있을 뿐.

생각해 보면 삶에는 진정한 시작도 끝도 없다. 삶이 정확히 언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삶은 언제 완전히 끝나는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이 몸, 껍데기뿐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죽음은 변

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나이 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나는 지금의 몸을 통해 사는 이 삶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거듭 기억하려 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우리는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까? 신기한 일이다.

이모의 유골함 위쪽 선반에는 한 아기의 유골함이 있었다. 아기의 부모는 사랑한다는 말을 써서 항아리 옆에 놓아두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언제 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 너머 나아갈 수 있다. 미루거나 두려워할 시간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좋

은 것이라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어느 모임에서 문득, 이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과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살아 있을 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 친구는 다섯 개 언어에 통달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한 사람은 과학 잡지 <네이처>에 자신의 글이 실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길이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기원한다.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나는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용기를 준다.

< · >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16국사중 제1세인 불일(佛日) 보조 국사(普照國師)가 운수납자로 행각을 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자 스님은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던 중 산기슭에서 숲 굽은 움막을 발견했다.

「주인 계십니까?」

「뉘신지요?」

움막에서는 지긋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는 객승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까 합니다.」

움막 안의 노인은 스님을 맞게 됨이 영광스러운 듯 내다보지도 않던 종전과는 달리 허리를 구부려 합장하며 정중히 모셨다.

「이런 누추한 곳에 스님을 모시게

되다니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노인은 감자를 구워 저녁을 대접하고 갈자리 방에 스님을 쉬게 했다.

「영감님은 무얼 하시며 사시나요?」

「그저 감자만 심어 연명하면서 숯이나 굽고 산답니다.」

한참 신세타령을 늘어놓는 노인에게 스님은 물었다.

「영감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만 내생(來生)에 다시 태어난다면 중국의 만승천자(萬乘天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소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선업(善業)을 쌓고 열심히 참선을 하시면 됩니다.」

스님은 공부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일러줬다. 그 뒤 30여 년간 수도에 전념하던 스님은 길상사(吉祥寺)(현 송광사)에 주석하시게 됐다.

그 당시 길상사는 이미 퇴락될 대로 퇴락돼 외도들이 절을 점거하고 있었다.

하루는 스님께서 외도들에게 길상사 중창의 뜻을 밝혔으나 외도들은 물리나려 하지 않았다.

「여보게, 우리 오늘은 저 스님이나 골려주세요.」

「그저 재미있겠는데.」

외도들은 절 앞 냇가에 나가 고기를 잡아 한 냄비 끓여 놓고 먹다가는 그 앞을 지나는 스님을 불러 세웠다.

「스님께서 이 고기를 먹고 다시 산 고기를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절을 비워 주겠소.」

스님은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말없이 고기를 다 잡수셨다.

그리고는 물로 가서 토해내니 고기들은 다시 살아 꼬리를 흔들며 떼지어 푸드득거렸다. 스님의 도력(道力)에 놀란 외도들은 즉시 절을 떠났다.

지금도 송광사 계곡에는 그 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토해낸 고기라 하여 「토어(吐魚)」 또는 「중택이」「중피리」라고 부른다.

그 후 스님은 길상사를 크게 중창하고 절 이름을 수선사(修禪寺)라 개칭하는 한편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을 선포하여 납자를 제접하고 선풍(禪風)을 드날렸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천태산(天台山)에서 16나한님이 금나라 천자(天子)의 공양청장을 받고 스님을 모시러 왔다.

그러나 스님은 너무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승려신분으로 왕가(王家)에 가는 것은 불가하다며 사양하셨다.

「큰 스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을 생각하시어 눈만 감고 계십시오. 우리가 모시고 갈 것입니다.」

꼭 모셔 가야겠다고 작정한 나한님들은 간곡하면서도 강경하게 권했다.

스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입정에 드니 순식간에 중국 천태산 나한전에 도착했다.

절에서는 막 백일기도를 회향하고 있었다. 법회가 끝난 뒤 대신들은 스

남께 아뢰었다.

「천자께서 등창이 났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해서 이곳 나한님께 백 일기도를 올렸더니 나한님들의神通력으로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순간 스님의 뇌리엔 산중에서 솟 굽던 노인이 떠올랐다.

스님은 천자의 환부를 만지면서「내가 하룻밤 잘 쉬어만 갔지. 그대 등아픈 것은 몰랐구먼. 이렇게 고생해서야 쓰겠는가. 어서 쾌차하여 일어나게.」하니 천자의 등창은 언제 아팠느냐는 듯 씻은 듯이 완쾌되었다.

천자는 전생의 인연법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다.

「스님, 그냥 가시면 제가 섭섭하여 아니 되옵니다.」

천자는 사양하는 스님에게 보은의 기회를 청하면서 많은 금란가사와 보물을 공양 올리고는 아들인 세자로 하여금 스님을 시봉케 했다. 보조스님께서서는 중국의 세자를 시봉으로 삼아 수선사로 돌아오셨다.

보조스님과 함께 온 금나라 세자는 현 송광사가 자리한 조계산 깊숙

한 곳에 암자를 짓고 수도에 전념하니 그가 바로 담당(湛堂)국사다.

담당국사는 그 후 얼마 전까지 효봉, 구산선사가 주석하던 지금의 삼일암(三日庵)에 내려와 영천수(靈泉水)를 마시면서 공부하다 3일 만에 견성했다.

때문에 그 방을「삼일암」이라 명명했고 약수는「삼일천수」라 부르고 있다.

지금도 조계산내 암자 중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자리한 천자암 뒤뜰에는 보조국사와 세자가 짚고 와서 꽃아둔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 자랐다는 두 그루의 향나무 쌍향수(천연기념물 제 88호)가 전설을 지닌 채 거목으로서 있다. 천자암은 불일국제선원의 모체라는 설도 있다.

보조국사는 경신년(1210) 3월 우연히 병을 얻었다. 스님은 7일 후 열반에 드실 것을 미리 알아 목욕하신 후 27일 아침 법복을 갈아입으시더니 설법전에 나가 대중을 운집시켰다.

법상에 오른 스님은

「대중은 일간지를 남김없이 물어라. 내가 마지막으로 설파하리라.」

하시니 한 제자가 물었다.

「옛날 유마가사가 비야(毘耶)에서 병을 보였고 오늘 스님계선 조계(曹溪)에서 병이 나셨으니 같습니까, 틀립니까?」

「너는 같은가 틀린가만 배웠느냐?」 스님은 주장자로 법상을 두 번 치시고는

「천 가지 만 가지가 여기에 있느니라.」

고 이르고는 앉은 채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문도들은 향화를 공양 올리고 7일 후 다비하니 얼굴이 생사와 같았으며 수염이 자라 있었다.

송광사에서는 매년 음력 3월이면 지눌(知訥) 또는 스스로 목우자(牧牛子)라 불렀던 보조국사 종제를 봉행하며 그 유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뜻을 함께해줄 작가를 모집합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은 1994년 5월 첫 창간하여 매월 법정스님의 글을 비롯하여 삶의 지혜를 주는 글, 지역모임의 활동 안내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행사 및 법회 등의 소식을 담아 회원 및 신도를 비롯하여 길상사 방문객,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의 뜻에 공감하여 마음을 함께 해줄 여러 작가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모집 부문

- 창작 문학(시, 수필, 에세이, 칼럼, 카툰, 1면 만화)
-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모집 안내

- 회원 투고, 작가의 문학작품은 수시 접수 및 문의 받습니다. 법인사무국 전자우편(clean94@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시 때는 본인의 소개(이름,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작가의 의함에 따라 연재물은 원고료를 지급하며, 회원이나 독자의 글(단편)은 채택 될 시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맞춤법·띄어쓰기 주의, 컴퓨터 용어, 과한 한자 사용, 종교 비판 및 폄하는 피해 주시고,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진인요양원 나눔 행사를 11월 9일 진행합니다.

진인노인요양원 봉사팀은 매달 둘째 일요일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는 전통놀이 이수자의 설장구와 전통춤, 사물놀이 공연과 더불어 물품후원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설 입소 어르신에게는 삶의 활력을 북돋아드리고 봉사자간 화합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묘화원 나눔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묘화원 봉사팀은 지난 10월 5일 'Maigo Hangirumge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가을정(精)원 파티'를 묘화원, 불이원, 상락원 시설 어르신과 장애인 200여명을 모시고 음식 공양을 대접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원 활동 안내〉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봉사자 모집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활발한 성격을 지닌 대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결식이웃 말반찬 조리봉사 활동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450여 가구에 27지 말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본은 언제나 전해주세요.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봉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서 매일 2,0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고,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센터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또한 배식 관련 활동상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하며 미소지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져야 합니다.

등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져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이 우편 발송작업/3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새박사' 윤무부교수 초청 환경특강/30일(일)/오전 11시~12시/살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말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6,7,20,21,27,28일/김치(3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Maigo Hangirumge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3,10,17,24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청소년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9,16일/오전 9시 30분~12시/

청소년 봉사자

- 묘화원(차매노인 요양시설)/봉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2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둘째 일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발벗 봉사자 정기 모임/첫째 화요일(25일)/오후 1시 30분/스달타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2일(일), 30일(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5,12,19,26일/수요일 10시(삼부, 로션, 에센스)/세계일화실 비누는 조리장/산책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료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4,11,18,25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30일(일)/길상사 경내
- 월곡청소년 센터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5일(수)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 외환은행 117-13-60373-4 /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자원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맏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맏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른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사-음식조리, 19사-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른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사-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맏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 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맏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른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른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일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일 셋째 목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일 1,2,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범능 스님 노래,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8월부터 진행 예정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맏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다라니기도

- 일시: 11월 1일(토) 오후 7시~9시
- 장소: 극락전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11월 8일(토) 오후 9시
~11월 9일(일) 새벽 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11월 8일(토) 오후 8시 30분
~11월 9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준비물: 물, 수건, 좌복 보호대

수능생을 위한 무료 합동 천도재

- 일시: 11월 1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11월 28일(음.10.7)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추계관음기도

- 일자: 8월 11일(월)~12월 5일(금)
- 시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5만원

주말 선 수련회

매월 셋째, 넷째 주말에 진행됩니다.

- 일자
[2197] 11월 15일(토)~16일(일)
[2207] 11월 22일(토)~23일(일)
- 참가비: 5만원

부탄·카트만두 성지순례

- 일정: 2014년 11월 17일~25일(9일)
- 장소: 팀푸, 탁상사원, 푸나카 중 등

새박사' 윤무부 교수 환경특강

- 11월 30일(일) 오전 11시
- 장소: 설법전

2015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

- 일자: 11월 13일(목)
- 시간: 오전 8시~오후 5시 40분
- 장소: 극락전

천일기도 일정 안내

- 일정: 2014년 10월 11일
~ 2017년 7월 6일
- 시간: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길상사 방문객과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신도님과 방문객께서는 가능한 대중교통과 셔틀 버스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추계관음기도 회향	12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 결제	12월 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2월 6일	오후 7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12월 13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12월 13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길상사 창건17주년 기념법회	12월 1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2월 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2월 9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2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2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맑고 향기롭게 2014년 ‘결식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자 모집

〈 김장 나눔 개요 〉

- 일시: 12월 3일(수), 4일(목) 09:30 ~ 15:00
- 장소: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
- 나눔 대상자: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및 복지시설약 4,000여포기 예정
- 주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 협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 자원봉사 활동 및 모집인원 안내 〉

- 내용: 12월 3일(수) - 찬막 설치, 재료 및 양념 준비
12월 4일(목) - 배춧속 넣기, 포장, 전달, 정리
- 참여 대상: 회원, 길상사 신도, 자발적 참여 자원봉사자, 주부, 외국인, 학생, 기업체 등 총 200여명
- 준비물: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활동 혜택: 점심 제공, 기념품, 봉사활동인증서 발급(필요시)
- 봉사 참가인원을 사전에 접수해주시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업체, 단체 후원 및 참여도 기다립니다.
- 12월 4일(목)에는 김장 관계로 길상사 주차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방문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 접수, 문의: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02.741-4696 / www.clean94.or.kr
- 김장 후원: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